

2019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모범답안





[문제1]

[문제 1-1] 제시문 (가)와 (나)는 개인의 삶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문 (다)의 ‘사냥터지기’와 ‘정원사’의 태도를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가)는 개인의 삶을 그가 속한 사회의 역사와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나)는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생각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가)와 (나)는 개인의 삶을 사회와의 관계에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사냥터지기과 정원사가 공통적으로 전체적인 ‘균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가)는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반면 (나)는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자기 성찰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는 정원을 자신이 그린 이미지대로 재구성하는 정원사의 태도에 가깝고, (나)는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사냥터지기의 태도에 가깝다. (377자)

[문제1-2] 제시문 (다)의 ‘사냥꾼’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다)의 사냥꾼은 자신의 자루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냥감이 없어지면 다른 숲으로 옮겨가며 사냥을 계속한다. 그는 먼 미래에 사냥감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것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파괴와 정복만을 일삼는 이기적인 태도로서, 미래의 삶을 신경 쓰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 사회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을 전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박하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와 비교하며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조화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태도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453자)



[문제2]

[문제 2-1]

경제는 개별적 의사결정인 반면, 정치는 집합적 의사결정이다. 집합적 의사결정은 원하는 의사결정 결과를 얻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순응비용을 초래한다. 순응비용은 정치거래와 시장거래에서의 규범적 원리에 차이를 유발한다. 시장거래에서는 효율성의 원리가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반면 정치거래에서는 소수의 경제적 유력집단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구입해서 다수의 일반 유권자에게 순응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평등의 원리가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거래에서의 소비자들과 달리 정치거래에서 유권자들은 순응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소비자 역할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투자자의 역할을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인적, 재정적 정치자원을 제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얻으려고 한다. (418자)

[문제 2-2]

다운스의 모형에서 유권자들은 소극적인 소비자의 역할만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입장과 가까운 입장을 제시하는 후보에 투표할 뿐, 후보들의 입장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에 의하면 정치는 집합적 의사결정이므로 순응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소극적인 소비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자의 역할을 하려 한다. 특히 이념적으로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온건한 유권자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정치자원을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치자원은 후보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후보들은 급진적인 유권자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따라서 후보들은 다운스가 예측한 바와 같이 중도적인 유권자의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 (412자)